

롯데하이마트 “용산점 Bye, 용산 아이파크몰에 등지”

〈원효로 소재〉

〈용산전자상가〉

10년 만에 전자상가상권 컴백
300평 규모 조성... 7일 오픈
원효로 용산점 하반기에 폐점

“기존 상인에 모두 동의 얻어
가전상권 시너지 효과 기대”

롯데하이마트가 서울 용산 HDC 아이파크몰에 입점한다. 10여년만에 용산 전자상가 상권으로 컴백하는 셈이다.

HDC아이파크몰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오는 7일 아이파크몰에 매장을 새로 오픈할 예정이다.

하이마트는 올해 비효율매장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기존에 원효로에 있던 용산점을 하반기 정리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아이파크몰에 새로운 점포를 오픈하기로 했다. 아이파크몰이 용산구와 마포구 등 광역상권에 위치해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집객효과도 클



롯데하이마트 용산아이파크몰점은 7층에 자리를 잡았다. 현재는 가오픈 중이다. /김재용기자

것으로 기대했다.

하이마트는 1989년 용산전자랜드 1층에 첫 매장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한 회사다.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2000

년 법인을 설립했으며, 전자랜드에서도 철수하게 된다. 2012년 롯데쇼핑에 인수돼 롯데하이마트로 사명을 변경해 지금에 이르렀다.

하이마트 용산 아이파크몰점은 7층에 300평 규모로 조성된다. 하이마트 매장 중에서는 다소 작은 크기다.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용산이라는 특수성이다. 용산아이파크몰은 용산전자상가 상권으로 분류돼, 영세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가전 업체 입점이 제한됐던 곳이다. 이마트도 용산점에만은 가전 매장을 제외하고 운영 중이다.

아이파크몰은 기존 상인들의 동의를 모두 얻었으며, 법적인 규제가 아니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파크몰 관계자는 “아이파크몰은 자체적으로 초기에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가전 업체 입점을 제한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가전 매장을 3층으로 재편하면서 하이마트 입점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전 매장은 대부분 철수한 상태였고, 기존 상인들의 동의도 모두 얻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인근에 여러 매장이 입점해있는 가전단지인 전자상가와 나진상가, 전자랜드 등이 여전히 운영중인 만큼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산역과 용산전자상가가 이제는 같은 상권으로 보기 어려워진 만큼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지는 두고봐야할 문제”라면서도 “용산전자상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상권 인근에 초대형 유통점인 하이마트가 들어온다는 것에 부담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이미 기존에 있던 용산점이 용산전자상가 상권에 포함됐다고 판단했고, 아이파크몰점은 같은 상권에서 유통인구가 더 많은 곳으로 옮긴다는 의미”라며 “인근에 전자랜드 파워센터도 위치한 만큼 가전상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중대형 매장 특화’... 지능형 CCTV 출시

LGU+ 147대까지 동시 모니터링

LG유플러스는 종합 보안 솔루션 ‘U+지능형 CCTV’에 ‘단체형’ 신규 상품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체형 상품은 카메라 대수가 많은 중대형 매장이나 다수의 사업장을 한번에 관리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특화된 상품이다. 카메라 1대당 월 1만 1000원(부가세 포함)에 제공되며 아홉대부터 원하는 만큼 설치할 수 있다.

특히 U+지능형CCTV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별도의 영상저장장치 구매나 설치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수십에서 수백 대의 CCTV 관제 환경을 구축해도 초기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카메라 대수가 많은 이용자를 위해 PC 기반의 ‘영상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전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 대의 PC로 고화질의 CCTV 영상을 147대까지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사업장 내부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영상 공유’ 기능도 선보인다. 영상 공유 기능을 활용하면 산후조리원이나 애견호텔 등 고객과 신뢰가 중요한 업종에서 돌보고 있는 아가나 반려동물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U+지능형CCTV는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으로 CCTV 모니터링은 물론 ▲영상분석 AI로 침입자 자동감지 ▲고객 모바일로 실시간 알림 및 영상 제공 ▲긴급 출동 및 112·119 긴급신고 연계 등 보안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SKT, 2인 최초 3D 콘텐츠 스튜디오 만든다

MS ‘혼합현실 캡처’ 기술 도입
카메라 100여 대, 최신 장비 구축

SK텔레콤은 올 초 혼합현실(MR) 제작 시설 ‘점프 스튜디오’를 서울에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국내 계약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혼합현실 캡처 스튜디오’ 기술을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다.

혼합현실은 현실 공간속에 사실감을 극대화한 3차원 가상 이미지·영상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AR는 현실 공간에 가상 이미지를 입혀 보여주고 VR는 가상 공간에서 가상 이미지를 구현하는 반면, 혼합현실은 두 기술의 장점을 가져와 현실 공간 속에서 사용자와 실제 같은 가상 이미지가 상호 반응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SK텔레콤은 AR·VR·MR 등 실감 미디어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끈다는 목표로 ‘점프 스튜디오’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의 이용자가 손쉽게 3차원 콘텐츠를 제작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혼합현실 캡처 스튜디오’ 기술로 실제 구현한 3차원 콘텐츠. /SK텔레콤

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아이돌 가수의 3차원 아바타를 제작해 공연과 팬 서비스에 활용하고, 방송사는 스포츠 선수의 입체적인 이미지·영상을 방송 화면에 적용할 수 있다.

‘점프 스튜디오’에는 100여대의 카메라와 최신 그래픽 장비들이 구축된다. 스튜디오 안에서 특정 사람 또는 사물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3차원 이미지·영

상 결과물을 생성하는 등 모든 작업이 이뤄진다.

‘점프 스튜디오’는 기존 3차원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기업 또는 개인 이용자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한다. 현재 콘텐츠 제작 시 수많은 후반 작업이 수반되는데 이를 텍스처링(재질 입히기), 모션센싱(움직임 구현) 등 최신 기술로 대체해 제작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지역채널 25번서 신종 코로나 상황 확인”

LG헬로비전 재난방송체제 돌입

LG헬로비전 지역채널 25번이 권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 재난방송 체제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향후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상 체계 수위를 높여 재난방송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채널 25번은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과 확진자가 다녀간 강원 강릉 지역을 긴급 특보 체제로 전환했다. 특보를 통해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폐쇄 및 방역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민의 2차 감염 위험을 낮추고 지역 재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신종코로나 확산 추세에 따라 지역채널 25번은 지난주부터 지역뉴스 편성을 확대했다. 하루 2회 방송하는 지역뉴스를 각각 30분으로 늘렸다. 지역별 상황은 물론, 전문과 대담과 감염병 대응 요령 코너를 확대 편성했다.

또한 지역별 긴급 연락처 등 맞춤형 정보도 수시로 송출하고 있다. 지역채널 25번은 하단 자막에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번호와 함께 지역 내 보건소 및 거점 병원 연락처를 안내한다. 더불어 영어·중국어 자막을 통해 외국인 주민에 긴급 속보와 예방 수칙 등의 정보를 지속 제공 중이다. /김나인 기자

SK이노, 배터리 핵심광물 윤리적 구매 나섰다

‘책임있는 광물 공급 연합’ 가입
“사회적 책임 선제적 대응 중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업계의 ‘윤리적 구매’를 선도하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윤리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RMI(책임있는 광물 공급 연합)’에 최근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다보스포럼에서 배터리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배터리동맹(GBA)에 가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배터리 원재료의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목적으로하

는 국제 기구에 가입한 것이다.

RMI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원료 중 하나인 코발트를 비롯한 분쟁광물들이 채굴된 국가와 지역, 채굴 기업, 유통 기업 등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할 뿐 아니라 채굴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RMI 가입으로 아동착취와 같은 인권문제 및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광물을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스위스의 글렌코어 사와 지난해 말 맺은 코발트 장기구매 건에 대해서도 RMI 기준에

따라 외부 기관으로부터 실사를 받기로 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사업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선제적으로 다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은 그린벨런스 성장전략의 핵심인 배터리 사업이 원료 구매부터 생산·공급·재활용 등 배터리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